

식품수출정보

業 務 部

東獨, 필리핀 産品 購買 확대 계획

— 코코넛오일 · 코피原豆 등, 船舶사정
에 애로 —

필리핀 外務部는 지난해 12月12日 東獨이
금년중 필리핀産 코코넛오일을 月 500%, 기타
코피原豆 · 과일통조림 등을 구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코넛오일에 대한 로테르담
現物市場가격은 520弗 / MT이므로 東獨이 구매
를 약속한 코코넛오일 물량 500%는 月 26만弗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評價

현재는 필리핀의 對東獨 수출품은 의류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무역적자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
나 실제로 東獨에서 수입수요가 많은 필리핀의
전통적 수출품목인 코코넛오일과 과일통조림 ·
粗糖 · 천연고무 · 조동은 국내생산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필리핀과 동구권을 왕래하는 선박사정
역시 좋지않아 交易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필리핀 外務部 일각에서는
연전에 소련이 제안한바 있는 소련 商般수리소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수리가 끝나고 소련에
들어가는 빈 상선을 이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곳에 海運基地를 두고있는
美國이 절대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이 희박하다.

日, 農産物 조제 품 輸入 확대

— 輸入 制限 品 目 을 조제 품 형 태 로
輸入 —

日本에서는 농산물의 輸入自由化 傾向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제한품목을 調製品의
형태로 수입하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
다. 水麥粉에 砂糖이나 脫脂粉乳를 혼합한 소맥
분 조제품의 수입량이 88년 1~10月중에 6만9
27톤에 달해 87년 실적의 3배정도에 달했으며,
쌀도 냉동 Pilaff(버터로 볶은 쌀밥) 등으로
가공되어 수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가공비, 관세
등을 포함해도 일본현지의 원료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식품업체와 外食産業에서는 국산원료
사용에서 외국산 조제품으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현지한 금증세를 보인것은 비스켓類의 원료인
소맥분 조제품으로서 특히 우리나라産의 수입시
장 점유율이 높다. 이는 품질이 日本産에 뒤떨어
지지 않으며 가격또한 절반정도이기 때문인데
작년의 수입량 8만톤대에 달하고 89년 이후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오렌지果汁 조제품 수입
도 증가세에 있다.

美, 穀物生産 平年수준 넘을듯

— 今年 전망, 높은 穀物價格 지속으로
耕作 확대 —

美國의 작년도 곡물생산량은 여름 대가뭄으로
인해 87년대비 29%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다.

美 農林部의 곡물전문가들은 금년 美國의
곡물생산량이 평균생산량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過剩生産으로 인해 대량의
곡물잉여량 발생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급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美농림부
가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올해의 날씨가 평년
기후보다 좋아 강우량이 충분할 것이며, 또한

곡물가격이 계속 높은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아 농부들이 많은량의 곡물을 경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자료나 農産物 재배역사를 분석해 볼때 美國은 아직까지 2年 계속해서 가뭄피해를 겪은적이 없었으며 50년에서 87년사이 연간 穀物生産량이 전년에 비해 15%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그 이듬해는 만회하고 남아도는 것이 관례가 되곤했다.

매년 에이커당 생산되는 農産物 생산량은 지난 30년간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때 옥수수의 경우 에이커당 매년 2부셀이 증가했으며, 콩은 1.5부셀이, 그리고 밀은 1.33부셀이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발생한 대가뭄으로 인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곡물인 옥수수의 경우 에이커당 수확량이 87년의 119부셀에서 작년에는 82부셀로 그 생산량이 31%씩이나 감소했다.

미국의 곡물생산 전문가들은 올해에 에이커당 생산 가능한 옥수수는 87년도의 110부셀에서 금년도에는 115부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農林部의 한 관계자는 금년도 날씨가 곡물경작에 이상적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이커당 126부셀의 옥수수를 수확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89년 미국의 곡물생산량은 77억 부셀에서 83억 부셀이 될것이라 덧붙여 말하고 있다.

밀의 경우 봄밀 생산량이 가뭄으로 인해 평년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어 밀 販賣價格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많은 곡물 경작자들은 겨울밀 경작을 평년에 비해 26%정도 증가해서 경작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도 작년도의 밀의 부족량을 메꾸어 줄 수 있도록 현재의 미국내 밀 경작이 가능한 지역중 밀을 경작하지 않는 지역의 비율을 27.5%에서 금년도에는 10%선으로 줄일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25억 부셀의 밀을 무난히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印尼, 苛性소다 輸入需要 지속 전망

—우리나라産 品質提高 및 弘報活動 강화 힘써야—

인도네시아의 苛性소다산업은 56年 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0개사인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에서 8개사는 자체소비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2개사만이 생산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이들 10개 업체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5만톤 규모이며 이 중에는 우리나라와의 합작회사인 PT Miwon Indonesia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생산능력은 年 4,000톤 규모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2개회사의 年 생산능력은 전체의 약 35% 수준인 1만8천톤 규모에 불과해 자체에서 生産工場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輸入製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 Indonesia 의 苛性소다 生産実績

(단위 M/T)

연 도	생산량	연 도	생산량
1983	14,440	1984	23,000
1985	23,750	1986	35,100
1987	36,250		

인도네시아의 실제 생산량이 생산능력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어렵다는점과 가성소다 생산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鹽素의 國內需要가 저조해 헐값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가성소다의 販賣價格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장애요소로 대두되고 있고 가성소다의 생산량을 늘릴경우 鹽素의 마케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의이제품 생산이 저조함에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消費産業인 MSG·마아가린·비누·오일精

製·펄프 등의 분야가 발전하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苛性소다 需要규모

(단위 : t, %)

연도별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수요증감률
1983	14,400	123,889	138,289	-
1984	23,000	78,343	101,343	-27
1985	33,750	74,659	108,409	7
1986	35,110	90,171	125,281	16
1987	36,250	123,497	159,747	28

파키스탄, 茶 輸入自由化조치 발표

—輸入關稅 100%에서 60%로 引下, 綠茶 進출유망—

파키스탄정부는 현행 수입제한품목인 茶(綠茶, 紅茶)의 수입을 지난 24일부로 전면 자유화하고, 수입관세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가격인상 기미를 보이고 있는 茶값의 안정을 기하고 생활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茶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취해진 것으로 우리나라産 綠茶의 對파키스탄 進출이 유망시 된다.

파키스탄에서는 그동안 茶수입을 정부기업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해 왔는데, 정부는 外貨절약 차원에서 주로 무환연계 무역방식에 의해 수입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공급이 원활치 못해 정부에서 수입한 茶값이 國際價보다 높게 책정되어 오히려 국내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어왔다.

파키스탄의 89년도 茶수입규모는 약 9만 t에 달할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내생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民間企業의 茶수입 허용조치로 향후 파키스탄의 茶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각국의 다양한 茶가 현지에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89年度 對韓 양송이 통조림 輸入쿼타 발표

—EC執委, 버섯통조림에 對한 共同規格 채택 권고—

EC執行委는 12月21日자 官報를 통해 89年度 제3국산 양송이 통조림에 대한 쿼타량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 회원국들에게 버섯 통조림에 대한 共同規格을 채택 하도록 권고(Recommendation) 했다.

EC 規程 제3433/81에 따른 89年度 對韓 쿼타량은 3천 t으로 금년 하반기의 조정치 385 t을 훨씬 상회하나 이는 84년부터 87년까지 지속되어올 연간 쿼터량 3천 t과 동일한 수준이다. 회원국별 우리나라産 통조림의 輸入쿼타량은 덴마크가 20 t, 西獨이 2,960 t, 그리스가 5 t, 荷蘭이 15 t이며 여타 회원국을 전무하다. 한편 EC執行委의 버섯 통조림에 대한 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과정상의 規格設定 : 특히 이와관련 단백질이나 녹말, 버섯의 무게를 줄이거나 늘리는 化學요소s의 첨가를 금하도록 권고.
- 外부포장에서의 加工방법의 엄격한 명기
- 회원국이 이 권고를 시행할 때는 권고 발표후 3개월 이내에 이를 EC위원회에 통보함.

□ 評價

지난 81년 부터 EC의 일방적 國別쿼타 品目으로 묶여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송이 통조림은 81년 부터 84년까지는 매년 쿼타량이 감소 했으나 85년 부터는 계속 3천 t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양송이 통조림의 對 EC 수출 실적은 87년 13만弗에 달했으나 88년 들어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으로의 수출은 10月말 현재 98만불에 달했다.

코코아, 生産過剩으로 價格 下落예상

—5년간 生産增大加速 계속, 一部 國家 販賣보류—

세계의 코코아 생산업자들은 최근들어 일련의 회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 過剩生産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하고 있는 코코아價格을 막을 길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世界市場에서의 코코아의 풍부한 상태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속 가격의 하락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88/89 코코아 수확년도에 생산이 약 18만5천 t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생산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8/89 코코아 수확년도의 코코아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3만1천 t 이 증가된 총2억2,350만 t 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首都 라고스에서 세계 코코아 생산 12개 회원국의 販賣執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코코아 과일생산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계 코코아 주요생산국으로는 아이보리코스트·가나·토코·브라질 및 나이지리아이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코코아의 國際價格은 아이보리코스트의 販賣政策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코코아 생산국인 아이보리코스트는 가격상승을 위해 자국산 코코아를 세계시장에 내어 놓지 않고 보류하고 있으며 88년 10월말 현재 별다른 코코아 販賣實績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코코아 거래상은 아이보리코스트로부터 약 40만 t 의 코코아 구입을 흥정하고 있으며, 이 거래에는 프랑스정부의 金融 및 國際通貨基金으로부터의 차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코코아 소비자들은 만약 아이보리코스트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아이보리코스트에서는 현행 코코아를 세계시장에 내어놓지 않는 즉, 價格引上정책을 계속 연장해 나갈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세계 코코아생산동맹 12개 회원국들은 코코아原料를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대신 1차 加工處理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코코아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충고받고 있으며, 조만간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개최되는 코코아 생산자회의에서는 西歐시장에만 의존되어 있는 코코아 판매시장을 多變化하는 방안을 집중 토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레産 「青處物 포도」사건 확산

—美·캐나다서 禁輸, 日서도 販禁 조치—

극약인 청산가리가 주입된 칠레産 수입포도가 美國에서 발견된 후 美國과 캐나다정부까지의 시식 시판 및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日本도 14일 잠정수입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극물포도 파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日本후생성은 이날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칠레産 포도의 수입을 당분간 중단토록 하는 한편 판매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美보건당국은 오염된 포도에는 구멍이 뚫리고 구멍주위에 투명한 금속링이 박혀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들 포도에서 검출된 청산가리의 양은 어린이를 병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자연산 과일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칠레정부는 13일 카를로스 카세라스내무장관의 논평을 통해 자국공산당이 청산가리를 對美수출용포도에 주입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세관당국이 과일수출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